

사사기 11. "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, 누가 왕인가?" [9 장 1 절-57 절]

1. 들어가기

9 장은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그의 외가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70 명의 형제들을 살해한 뒤,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폭정을 행한 내용이 소개됩니다. 이때 기드온의 아들 중 간신히 목숨을 건진 막내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고,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을 보시고 악한 영을 보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깨드리셨고, 결국 자신들끼리 싸워 스스로 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. 그로 인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한 여인의 손에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며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.

2.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흔히 말하지만, 결코 하나님의 _____보다 앞서선 안됩니다. (1-6 절)

1) 아비멜렉은 고향 세겜에서 외가의 모든 친척을 모으고, 기드온의 70 명의 아들들을 죽이려는 계락을 꾸였습니다.

- 세겜 =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.
 - ✧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(창 12:6,7)
 - ✧ 야곱이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은 곳 (창 33:18-20)
 - ✧ 요셉의 매장지 (수 24:32) +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설교를 한 곳(24:1,25)
 - ✧ 그럼으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종교적 성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!!
- 아비멜렉 = 세겜에 살던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.
 - ✧ 이름의 뜻 = "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"
 - ✧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의 의도를 바꾸고, 스스로 왕이 되려 했음.
- 아비멜렉은 혈육의 정을 이용해 반역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. (2-3 절)
 - ✧ 2 절, "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! 나는 너희와 _____임을 기억하라!"
 - ✧ 3 절, "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, 그들의_____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_____라"
- 성도는 가족이고 친척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거나 모른 척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 오히려 함께 누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
- 누가복음 14:26 절
"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"
- 혹시 우리는 내 가족, 내 친척에겐 한없이 관대하고, 남에게는 더 까다롭게 행동하진 않는지 돌아봅시다.

2)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위해 바알브릿 신전에 받쳐진 재물 중에 은 _____ 개를 아비멜렉에게 주며 반역을 도왔습니다.

- 바알브릿 신전 = “언약의 바알을 위한 신전” - 당시 세겜의 종교적 타락을 알 수 있음
- 은 70 개를 주었다는 것은 기드온의 아들 한 명당 은 한 개가 살인을 청부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 - 곧 세겜 사람들이 단순하게 아비멜렉을 도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반역에 관여하며 아비멜렉과 논의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.

➤ 주목: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고 불태웠는데, 그의 아들은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을 받아서 형제들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!

3) 아비멜렉은 은 70 개로 형제들을 죽일 “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”을 샀습니다.

- 70 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반역을 성공한 후, 공개적으로 숙청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!

4) 아비멜렉은 친족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에게 의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. (6 절)

- 아버지 기드온이 영광스럽게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킨 후, 왕이 되어 달라는 모든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.
- 흔히 자식은 부모 맘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만, 성도는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,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.

5) 기드온의 막내 아들 _____ 은 스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한 후, 그리심 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. (7 절)

- 그리심 산 = 세겜 남서쪽에 있는 해발 855m 의 높고 가파른 돌산으로 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에발산과 마주한 산.
- 요담은 왜 그리심 산으로 갔을까?
 - ☆ 당시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으로, 에발 산은 저주의 산으로 알려졌는데, 요담은 의도적으로 그리심 산에 올라 그 뜻과 반대로 산 아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있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.
 - ☆ 지리적으로도 작은 목소리로 외쳐도 크게 들렸기 때문.

3. 요담의 우화 (8-15 절)

1) 요담은 왕이 되어 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겸손하게 거절하는 세 나무와 반대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나무를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며, 당시 왕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을 지적하였습니다.

2) 우화 속에 왕이 되기를 거절한 세 나무는 _____, _____, _____였습니다.

➤ 참고: Soggin, J.Alberton

“감람나무, 무화과나무, 포도나무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흔한 나무이기도 하지만,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나무이다”. 예를 들어, 감람나무는 줄기가 비어도 살수 있어 1,000년 이상을 살 수 있고, 성장한 나무는 일년에 500kg의 열매를 맺는다고 함.

- 이렇게 탁월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, 감람나무는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!
 - ✧ 이유: “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” (9절)
- 감람나무의 뒤를 따라 무화과나무, 포도나무도 차례로 왕이 되기를 거절!!
 - ✧ 무화과나무 = “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”
 - ✧ 포도나무 = “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”
-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,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왕이 되기를 거절한 세 나무는 아버지 _____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.

3) 반대로 _____는 “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” 라며, 왕이 되기를 결정함. (15절)

- 참고: 가시나무는 가시가 많고 바늘이 있는 초목으로 봄에 잠깐 꽃을 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잎도 없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식물이었음.
- “내 그늘에 피하라!” -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늘이란 말은 “보호(Protection)와 그늘(Shade)”의 이중적 의미가 있는 표현! (예: 주의 그늘아래 거하라~)
- ✧ 곧 “내 그늘에 피하라!”는 요담의 비유는 왕으로써의 아무런 자격도 없고, 능력도 없는 아비멜렉의 인품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!
- “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”
- 참고: 가시나무는 불에 쉽게 타는 관목이고, 당시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온 들판으로 번져 추수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.

4) 요담은 이렇게 나무우화를 예로 든 후,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 하였습니다.

- 세겜의 죄 - 그들을 구원해 준 기드온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, 정직하지 못함. (16-17절)
- 결과 -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서로가 서로를 불태우며 망하게 할 것! (20절)
- 그 후 요담은 브엘로 도망함 - 정확히 브엘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음 (21절)

4.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_____년간 통치하였습니다. (22 절)

■ 2 가지 주목!

- ✧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식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!
- ✧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박해하고 위협한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는 아비멜렉이었음!

■ 3년 이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에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가 아니였을까?

5. 하나님의 심판 (23-55 절)

1) 하나님은 _____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였습니다. (23-24 절)

■ 주목!

- ✧ 사사들에게 하나님을 영을 보내셨으나, 아비멜렉에게 **악한 영**을 보내셔서 심판!!
- ✧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**행한 행위대로**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심!!
24 절, “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에게 저지른 **포악한 일을 갚되**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**돌아가게** 하심이라”
- ✧ 계 20 장 13 절, “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”

2) 아비멜렉이 피가 썩인 자신의 형제와 가족을 배신한 것처럼, 자신도 피가 썩인 자신의 동족 세겜 사람들로 부터 배신당하게 하셨습니다. (26-55 절)

■ 에벳의 아들 가알 = 학자들은 가알은 천한 가문에서 출생했다고 생각함.

- ✧ 이유: 에벳의 뜻은 히브리어로 ‘종’이라는 뜻! 곧 직역하면, “종의 아들, 가알”.

■ 아비멜렉을 향한 가알의 선동 (26-29 절)

- ✧ 혈통을 이용한 선동 - 아비멜렉은 여룹바알의 아들! 그런데 어찌 세겜이 그를 섬기는가?
- ✧ 이것은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혈통을 근거로 형제들을 죽일 때 사용한 방법!

■ 세겜의 장관 스불 (30-33 절)

- ✧ 세겜 사람으로 아비멜렉의 심복 - 아비멜렉으로부터 세겜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 받음.
- ✧ 세겜의 정황을 아비멜렉에게 은밀히 보고한 뒤, 세겜을 공격할 것을 요청.
- 곧 세겜 사람이 세겜 사람을 배신하게 된 것!

■ 아비멜렉은 3 번에 걸쳐 세겜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폐허로 만듦. (34-49 절)

- ✧ 1 차 공격 : 가알과 함께 했던 반란군을 공격.
- ✧ 2 차 공격 : 밭으로 나온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로 공격.
- ✧ 3 차 공격 : 세겜 망대에 도망한 천명의 사람들을 모두 불태워 죽임.

- 특별히 아비멜렉은 세겜 성을 헐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게 함! (45 절)
 - ☆ 소금은 폐허를 가리키는 의미 - 근동 지역에는 정복한 땅에 소금을 뿌리는 관행이 있었음..
 - ☆ 곧 아비멜렉은 세겜 성이 영원히 폐허로 남아 있길 바라며 소금을 뿌림!!
 - ☆ 그 만큼 자신을 배신한 것에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음.

- 이로써 세겜을 향한 요담의 예언은 아비멜렉을 통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.

3) 세겜을 몰살시킨 아비멜렉은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 데베스를 공격하였으나, 결국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. (50-55 절)

- 데베스 =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Km 떨어진 도시
- 그럼 왜 아비멜렉은 여기까지 갔을까?
학자들 - 아마 데베스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가알과 세겜의 반역자들을 돕지 않았을까?
-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점령한 뒤, 망대 위에 숨어 있던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망대를 불사르려다 망대 위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됨.
- 조금 전까지 세겜의 승리로 기세 등등하던 자칭 이스라엘의 왕, 아비멜렉은 이렇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어지며, 허무하게 인생이 마무리 되었음.

4) 성경은 이것은 그들의 죄를 갚으신 하나님의 _____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.

- 56-57 절, “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칠십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”
- 갈라디아서 6 장 7 절, “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”

생각하기 1.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?